

조경수의 개발과 이용



박형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

머릿말

조경수목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서 같은 수종이라도 품종이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새로운 조경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떠한 수종을 특정수형에만 국한하여 연상하는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탈피하여 조경수목에서도 '품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품종의 개발과 그 품종의 고유한 특성이 보존될 수 있는 번식방법의 연구 및 보급으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이 조경수목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식은 조경에서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설계가나 이용자는 새로운 조경식물 소재를 물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고유한 정취와 향토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생식물의 개발과 이용에 관심을 기울일때라고 생각한다.

1. 조경수의 신품종 육성

현재 조경수목은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조경식재 설계도면에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물육종방법이 발전됨에 따라서 교목인 수종이 왜성형, 수양형, 포복형(prostrate), compact형 등으로 개발되기도 하며, 관목인 수종이 교목성인 직립형 수종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종형만으로는 수종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표기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특히, 자용이주인 수종을 암수의 구별없이 설계도면 등에 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은 조경식재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조경수목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많은 새로운 조경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수목에서도 '품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품종의 개발과 번식방법의 연구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한국 자생종들이 미국 및 Canada에 도입되어 재배 및 판매되고 있는 나무는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해서 많은 수종들이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된 신품종은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수종의 개발이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국립수목원이 1985년과 1989년 두차례 걸쳐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종을 채집하여 갖고, 펜실바니아 대학의 모리스수목원의 Paul Meyer씨는 다섯 차례 걸쳐 한국을 다녀가 현재 미국에서 한국원산 및 자생수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자생 때죽나무가 1985년에 Raulston 박사와 미국의 국립수목원팀에 의해서 소흑산도와 대흑산도 채집되어 미국의 도입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들은 아놀드수목원 등 4개 수목원에서 보존되고 있고, 아팔라치안 Nursery 등 27개 모목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흑산도에서 채집되어 미국에 도입된 때죽나무는 잎과 꽃이 크고 왜성의 특성을 지닌 'Emerald Pagoda (Sohuksan)' 등 6개 품종, 꽃잎이 핑크 빛을 띠는 'Pink Chimes' 과 'Rosea', Weeping form인 'Pendula'와 'Carlton' 등으로 육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겹꽃 때죽나무와 변

이 잎 때죽나무 등이 선발되어 조경수로 보급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조경수 개발에는 기능적인 면과 함께 미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목 이용을 위한 식재설계에서는 균형·리듬·강조·조화의 설계 원리에 따라 색·질감·형태·선의 설계요소를 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경수 개발에는 이와 같은 미적 요소의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조경수 개발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가지 예로 한 수종에 대한 다양한 수형 개발로 유전형질이 좋은 수종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즉, 직립형 수종(*fastigiata*)은 가로수용 수종으로 가능하다. 교목을 왜성 수종(*dwarf*)으로 개발한 경우 교목하층 식재수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수양형 수종(*weeping*), 가지 및 엽이 치밀하고 콤팩트는 *compact*형 수종, 포복형 수종(*prostrate*) 등을 개발하면 필요한 공간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경수에서 꽃의 관점에서 보면 꽃색·꽃의 크기·꽃의모양·꽃향기 등에 특징이 있는 수종의 개발이 가능하며, 잎의 관점에서 보면 적색 또는 황색으로 단풍색이 아름다운 수종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풍전 생육중의 잎색이 녹색 이외의 것 즉, 개엽하면서 적색인 수종, 황색인 수종등 변이종인 수종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잎의 크기와 결각이 특이한 수종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열매의 관점에서는 열매색·열매의 크기·열매의 형태가 특징적인 수종의 개발도 요구되며 즐기색이 특이한 수종이나 즐기에 무늬가 있는 수종개발이 필요하다.

2 조경수의 적정이용

우리 나라에서는 낙엽성 조경수목이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요 조경수목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식재되어 지역적인 특징이 없는 식재경향이어서 조경의 유형과 지역 특성에 알맞는 조경식물의 선택과 이들을 폭넓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수목의 선정은 성상·수형·꽃·열매 등 관상적 가치와 토양·기후·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생태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지역적 특색이나 환경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한 몇몇 수종에 한정되어 있어 조경소재의 빈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경소재의 다양

화를 위해서 외래 도입종보다는 그 지방의 기후나 토양에 잘 적응되어 온 향토수종(자생수종)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호수로 지정된 수종과 우리 나라 환경조건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역적 이미지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종이나 보호수종의 적극적인 도입증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및 정서적 효과를 위해서 과수목도 식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조경공사에 있어서의 조경수목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교목과 관목수종의 식재비율은 1 : 6이었고, 상록과 낙엽수종의 구성비율은 1 : 4이었으며,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수종은 회양목·향나무·느티나무·은단풍나무였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수종은 관목의 경우 쥐똥나무·개나리·회양목 등 3개 수종의 사용량이 전체 관목 사용량의 절반을 크게 상회하는 심한 편중도를 나타낸다. 교목에 있어서는 잣나무를 위시한 8개 수종의 사용량이 전체 교목 사용량의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비고시수종에 비해 고시수종의 수는 25%에 불과하였으나 고시수종의 사용빈도는 비고시수종의 6배이며, 고시품목의 사용량은 거의 전체를 차지하였고, 고시품목의 사용량은 교목보다는 관목 그리고 낙엽수종보다는 상록수종에서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현재 사용 실적이 미미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생수목에 대해서 그 생산과 이용을 촉진시켜 앞으로 우리 나라 조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는 교목보다는 관목수종으로 집안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항상 접할수 있고, 겨울에도 열매를 이용하여 새들의 먹이로도 유도하여 정서생활과 더불어 수종의 특성을 개발하여 미적으로 가꾸어야한다.

도시공원에 있어서 선의 요소인 조경수목의 도입은 공원이용자의 심리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에 식재될 수목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미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도시의 건강기능성을 고려한 구비조건으로서 환경정화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악화된 도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목의 선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시공원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항상 도시민들이 접하는 공간이며 도시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공원에 식재되는 공원수는 시각적으로 풍부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생수종의 생태적 이용측면에서 관찰하여 볼때 도시림 조성을 위해서는 생태적인 품종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산성비에 강한 그룹으로서 팔배나무·때죽나무·생강나무·신갈나무·소나무 등의 배치 조합형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수목을 도시림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수종의 자생지 식물군집구성 분석으로 얻어진 수종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 될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배식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팔배나무는 때죽나무·생강나무·신갈나무·소나무 등과 같이 배식하며, 노각나무는 서어나무·물푸레나무·떡갈나무·단풍나무·철쭉·생강나무·때죽나무 등과 같이 식재하며, 비목나무는 때죽나무·서어나무·생강나무·팔배나무·쪽동백·갈참나무 등과 같이 번식하므로 공해에 강한 공업단지 지역에서의 야산에 그대로 생존하고 있는 수종이거나 환경오염에 적응성이 있는 내성 수종인 산벚나무·사철나무·검노린재·때죽나무 등을 이용한 녹지조성 및 복원계획이 가능하다.

도시림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조경수로 개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조경수종에 대한 신품종 육성이나 기능적 이용을 위하여 새롭게 개발 육성되어야 할 수종들이라고 생각된다. **조경수**

